



# 우리는 왜 불·조사님의 권능이 없는가?



學語之輩 說時似悟 (학어지배 설시사오)

말을 배우는 그 무리들은 말할 때는 깨달은 것 같으나

對境還迷 所謂言行 (대경환미 소위언행)

경계에 맞닥뜨리면 미혹함에 돌아가나니  
이른바 말과 행실이

相違者也 (상위자야)

서로 틀리기 때문이다

- 禪家龜鑑 중에서 -

우리는 언제까지 우리의 권능을 보여주지 못하고 옛 조사들의 영험과 신비를 경경적으로 팔고 자랑만 하고 있을런지.....

불·조사님 들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나]라는 주인공을 찾았지, 강산이 바뀌게 되는 날, [나]를 상품으로 팔아라 한 적이 어느 경전이나 조사어록을 봐도 나와 있지 않다.

“다만 후대를 위해 이 지침서를 남겨 놓고자 함은 나와 같이 길을 가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그릇됨이 없기를 염려하여 이 글을 남겨 놓을 뿐이노라.” 하셨다.

그런데도 이 도량이 어찌고 저찌고 선전하며 조사의 영험과 신비만을 얘기하며 말 잘하는 앵무새가 되어 가고 썩은 고목이 되어 가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이 불·조사님을 닮아가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냥 부처님 제자일 뿐이다. 그런데도 내가 석가족 법맥을 이어 온 몇 대 손이다. 내가 한 때 부처님 제자로써 누구 누구였는데, 이 말세에 환생했다. 하며 중생을 구제하고자 부처님의 명을 받아 왔다는 등등.... 말과 글이 너무 난무하고 있다.

절집을 들락거리는 불자들이 그 말과 글에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가쪽이나 자기가 다니는 절에 큰 스님 밖에 모르는 세상인데.... 지금 불자들은 말에 흔들리고,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제발 이 말세에 말과 글을 앞세우는 행위는 그만두고, 참다운 수행자로서 얻은 그 권능을 보일 때이다. 지금 말세에 병고로 고생하는데 왜 보여주지 못하나?

**바르게 실천 수행하면 반드시 불·보살님의 권능은 생기게 마련이고, 지금이야말로 말세에 일어나는 삼재 중에서 질병재에 해당하는 육체적인 병과 정신적인 병을 고치는데 그 권능을 써야 할 것이다.**

### [ 사례 ]

1. 서초구에 사시는 초등학교 교사 부부가 친구 가족을 데리고 왔다. 그 중에 친구의 여동생이란 분이 얼굴빛이 검고, 몸에 힘이 없어 보였다. 나이는 42세로 독신이고, 몸이 불편해서 노동은 할 수가 없고, 가벼운 집안청소 정도하면서 오빠와 같이 지내고 있는데 병명을 물어보니 백혈병이라고 한다. 그래서 종교를 물어보고 2일 기도해 주니 힘이 난다고 하면서 이참에 새벽 기도에도 동참해 보겠다고 하길래 단 집에서 형제들과 같이 매일 새벽에 오라고 하고는 안거가 끝나고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니 백혈병이 흔적도 없이 다나갔다고 하는 것이다. 그때 전 가족이 기뻐하며 눈물 흘리던 모습이 선하다. (서울)

2. 오래전 서울 있을 때 연이 되었던 분이 오랜 만에 찾아왔는데 인색이 좋지 않다. 물으니 서울대 병원에서 진단이 몸이 점점 굳어가는 희귀병이라고 한다. 수술을 일주일 앞두고 두려움에 왔다는 것이다. 척추에서 시작된 병으로 우리나라에선 최초로 발견된 희귀병이라 수술을 해도 정답을 하지 못한다고 하길래 우선 2박3일 기도를 받게 하고 수술을 받았는데, 의사가 회진차 와서 하는 말이 “어디 가서 기도 받고 왔느냐?”고 묻길래 “그렇다.”고 하니 기적이라고.... 원래는 기계를 몸속에 넣어야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눈물로 고맙다고 전화하고 그 후 시간이 나는 데로 절에 찾아와 기도를 하고 가곤 한다. 이번 안거 입재날도 다녀갔다.

※ 참고로 그 당시에,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 한분이 (2013. 6월)에 본 사례자와 같이 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그분은 지금도 보호자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다고 한다. 가족 중에 한분이 직장을 그만 두고 간병하고 있다면서 이번 안거에 와서 5분 정도 대중 앞에서 직접 얘기를 했다. (남양주)

3. 해마다 10월이 되면 독감 예방주사를 맞기 위해 가까운 곳에 가는데, 거기서 스님에게 주사를 놓던 이가 “스님! 어느 절에 계십니까?”하고 묻길래 “충해공원에 있는 연등사인데 아직 절은 건립 중에 있습니다.” 하니 “스님에 대해서는 조금 압니다.” 하며 친견을 하고자 하길래 다음 날 절로 찾아오라고 했다. 내용인즉 본인은 20여년전 부터 신장을 중심으로 주위가 좋지 않아 부산 북음병원에서

지금까지 한 달에 한번 검사와 처방을 받고 있었는데 이제는 상태가 워낙 좋지 않아 혈액 투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종교를 물으니 불교라고 한다. 오래전부터 큰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기도도 열심히 했고 불교대학도 거쳤다고 한다. 집에 가서 부적등 기록적인 것들을 다 치우고 나서 기도생활 한다는 것은 좋으나 정법과 사법을 가려서 하라고 철저히 일러주고 새벽기도 2일 해 주고 지금까지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밝은 모습으로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이번 안거에도 동참하고 있다. (거제)

4. 아는 분의 소개로 전화가 왔다. 남편이 오래 전에 대장암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간경화까지 오게되어 황달과 더불어 복수까지 차서 움직이는 데도 힘들다고 했다. 이미 5년전 부터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과 입원을 반복해 왔으나 이제는 아예 회복 가능성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꼭 보호자와 같이 절에 오게 해 상담해 보니 그 환자 형제가 B형 간염 보균자라 했다. 이미 간 상상으로 세상을 떠난 분도 있었다. 종교가 무엇이냐고 물으니 불교라 했고, 집 가까운 곳에 있는 큰 절에 나가 매일 새벽기도에 동참하며 열심히 신앙 생활 한다고 한다. 집에 가서 부적 등을 수거하고는 3일 기도해 주고, 20여일 절에서 생활한 후, 병원에 검사해 보니 의사 왈, B형 간염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그동안 복수가 차서 고생했는데, 허리가 42인치 이던 것이 32인치로 줄어든 것이다. 그 후 1달에 1번씩 서울로 가 기도해 주었는데 키 큰 모습에서 환한 얼굴을 볼 수 있어 지금도 불·보살님께서 그 권능을 주심에 한없는 감사를 드린다. (서울)

5. 42세 되는 여인이 병원 입원 치료를 거부하고 아는 분과 같이 절에 왔다. 그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참기 어려운 통증으로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고, 자꾸 어지러워 쓰러진다는 것이다. 그녀의 눈을 보니 신병과 지병이 같이 공존하고 있었고, 약은 신경계통 약은 기본이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분마다 각기 다른 약을 복용한지도 오래 되었고, 특히 그 집안은 현재 신을 받은 이가 있었다. 집안에 신 받은 이가 있으면 가족이나 가까운 인척 중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또 다시 생길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집에 가서 부처님께서 극구 하지 말라고 한 것(부적등...)을 제거하고는 2일 새벽에 불 및 기도에 동참해서 두 번 기도 받으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짱하게 웃음을 되찾게 되자, 한 집안의 아내로서 열심히 살고 있으며, 새벽 안거에 동참하고 있다. (거제)

6. 전국에 대형 지원이 있는 큰 절에 다니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다고 자부하는 50대 초반의 여인을 형제들이 절에 데리고 왔다. 데리고 오는데 애를 많이 먹었다고 한다. 본인이 다니는 큰 절 이외에는 절대 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녀는 지하방에서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두운 곳에서 문둥생활을 하면서 밤만 되면 큰 절 법당에 갔다 오곤 했다는 것이다. “왜 낮에 가지, 밤에 갔느냐?”고 물으니 어느 때 부처님 절에서 안 나왔으면 하더라. 그녀는 한 때 지역의 신도회장 모임도 맡았었고, 세 아이들을 유치원까지 다니게 했고, 지금은 그 아이들이 다 군에 갔다 온 정인이 되었지만, 그만큼 열성적으로 헌신적으로 절에 다니면서 온갖 봉사 는 다 해 왔는데.... 절에서 오지 말라나? .... 그녀는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 신병의 장애를 받고 있었다. 새벽예불과 더불어 기도 2일 해 주고 그녀는 정상인이 되었으나 그 집안에 더 큰 문제가 하나 더 있었다. 20대 중반인 큰 아들이 일찍 신병이 들어 기도도 하고, 천도재, 구병식, 예수채 등등.... 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수도 없이 했지만 오히려 상태만 안 좋아져서 경기도 일원에 있는 정신병원을 전원공급하다가 본 절에 올 당시는 해남에 있는 대형 정신병원에 있었다. 그래서 바로 스님이 보호자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데리고 와 기도를 해 주고 지금은 약 후유증은 조금 있으나 청년으로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일산)

7. 어느 스님이 상담차 전화가 왔길래 많은 얘기를 하고 싶어하

나 정확한 것은 눈을 보아야 하니 절로 찾아오라고 했다. “스님 정도 되시면 전화 음성만 들어도 정확하게 알 것 아니냐?” 하길래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 얘기하고 정녕 고통으로 부터 벗어나고 싶으면 정해진 날에 오라고 했다. 대면해 보니 신병이 오래된 것이었고, 그로 인해 신체가 부자연스러웠다. 신병이 따라오게 되면 모든 기능이 정상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다. 매스컴과 유명세를 탔던 곳을 다 찾아다니기도하고, 스님으로서 해 볼 수 있는 것은 다 해 보았으나 별 소용이 없었다고 했다. 가족 중에 이미 신병으로 세상을 떠난 이도 있었고, 현재 신병으로 고생하는 이도 있었다. 기도를 해 주는 조건으로 “지금부터 스님 절에서 신문에 이미 밝힌대로 일체의 비불교적인 행위(사주, 철학, 삼재풀이, 삼재기도, 어류, 조류방생, 성지순례, 산신기도, 용왕기도 등등...)를 하지 않겠다는 확신을 주면 기도를 해 주겠다.” 하고 그로부터 며칠 뒤 연락도 없이 그 절에 가 보니 비불교적 행위 사주, 철학, 부적 등을 일체 사할 한다는 안내문을 보고 들어와서 그 스님을 오게 하여 신도들과 같이 2일 기도 후 지금은 건강한 모습으로 수행정진 하고 있다. (봉화)

8. 결혼 한지 10여년이 지났는데도 태기가 보이지 않고 몸은 자꾸만 허약해지고, 특히 바깥들이러가기 무섭다는 것이다. 먼 거리가 아예 염두도 못 내고, 바로 집 앞에 있는 슈퍼에 나가기도 무섭다고 했다. 또 슈퍼에 가는 도중에도 몇 번이나 쓰러져 눈을 떠보면 병원 응급실에 누워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비상시를 대비해서 연락처가 적힌 메모지를 항상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닌다고 했다. 환자의 집을 방문하여 부모 입회하에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힘이 없어 처진 상태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숙인 채로 힘이 없어만 있는 것이다. 몇 번이고 고개를 들어보라 해도 못하다가 자꾸 말하니 마지못해 겨우 고개를 드는 순간, 스님의 눈과 마주했는데 환자 하는 말, “엄마, 내가 고개가 들어지네... 그리고 힘이 나네...” 하며 울먹거리며 그 동안에 있었던 고통의 얘기를 시작했다. 즉석에서 잠시 기도해 주고, 2일을 새벽에 절로 오라고 해 기도를 해 주었다. 그 후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그 인연으로 안거 100일 기도에 동참하고 있었는데, 기도 회향 하루 전날 저녁나절에 찾아왔다. 기쁜 소식을 스님한테 전해야 한다면서 하는 얘기가 임신 3개월째라 했다. 지금 그때 태어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벌써 6살이 되어 유치원에 잘 다니고 있고, 이번에는 또 둘째 아이를 낳았다고 한다. (구리)

9. 학교에 다녀야 할 여자아이를 데리고 부모가 찾아왔다. 우선 아이는 확장스님과 같이 있게 하고, 부모와 먼저 상담을 했다. 학교나 학원이나 어디를 가도 이해하지 못할 말과 행동 때문에 적응은 고사하고 다른 아이들에게 영향을 준다면 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종교를 물으니 아빠는 불교, 엄마는 기독교, 아이는 천주교라 한다. 종교를 떠나 아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자세히 얘기해 보라 하니 신장정신과 상담부터 인터넷을 뒤져 큰 절도 찾아보고, 무당을 찾아 굿도 해 보고, 심지어는 영험하다고 하는 기독교 전도사가 기도하다 기절하여 응급실로 실려가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지게 되었고, TV에 소개되었던 이를 찾아 최면까지 해 보았으나 오히려 증상만 더 심해지고 그때마다 그들에게 X자 들어가는 육만 거침없이 내뱉더라는 것이다. 상담해 보니 양쪽 집안에 할머니들이 신을 모셨다고 한다. 확장스님보고 아이를 데려오라 하여 눈을 보니 정신현상이 뚜렷했다. 그때 아이의 엄마가 스님에게 슬며시 물었다. “빙의가 맞죠?” 그래서 “맞다.” 고 했더니 “그러면, 누가 들어있어요?”하며 다시 물었다. “00 00와 몇 살 먹은 남자아이가 들어 있다.” 고 했다. 그리고 나서 일요법회에 아이를 데리고 부모가 꼭 오라고 했는데 오지 않았다. 알고 보니 지리산 큰 절에 갔다는 것이다. 그로부터 한 달 뒤에 부모가 다시 찾아와서 아이를 좀 살려달라고 간청 하길래 인연이 아니니 돌아가라고 하면서 전국 명산, 영산 사찰, 영험도량, 신비도량 등등... 유명한 곳을 다니면서 더 돌아보고 오라고 하며, 단호하게 내치는 데도 3시간이 지나도록 가지 않는 것이었다. “그럼 아이는 어디있냐?” 고 하니 그 절에서 15일 동안 있다가 빨리 데려가라는 전갈이 와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는 것이다. 바로 데리고 오라 하니 병원에서라도 상태가 심각하다며 놔주지를 않는다고 했다. 결국 입원 1달 만에야 아이를 데리고 나와 절에와 신도들과 같이 새벽예불후 기도 받고, 아이의 본성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창원)

※ 참고로 정신병동에 오랫동안 있었던 환자는 빙의, 정신현상이 제거되어도 약으로 인한 후유증이 심각함을 알아야 한다. 본 도량에서는 말기암 환자이든, 희귀병이든, 정신병이든 현대의학으로 1%의 가능성이 있는 환자는 받아주지 않고 있고, 더구나 일체의 약은 금물이다. 얼마있지 않으면 수행생 수능기도 한다고 수행생 발원문에 입시생 사신까지 붙여 중점적으로 불·보살님 전에 들어 밀고 있을 모습을 선하다. 소위 기도한다고 명산 사찰을 찾아 가정을 멀리하고 오직 내 아들, 딸만을 찾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면 불교가 이것 밖에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본 도량에서는 이런 기도뿐만 아니라, 매매, 함계, 승진, 사업번창 기도 등등... 이런 기도는 아예 사절하고 있다. 이럴 때 내 아들, 딸을 위한 **기도란 바깥으로 쫓아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가족이 있는 내 가정에서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아들, 딸 방을 매일 쓸고 닦고, 책상을 매일 정리하고 집안일은 타인에게 시키지 말고 엄마들이 스스로 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 일을 할 때 힘이 들 것이고 그 때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하라는 것이다. **힘이 들고 땅이 날 때가 바로 업장소멸이 되는 것이다.** 그러고도 시간이 남으면 복지시설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동네 독거노인을 찾아서 말벗도 해 주고, 그의 손과 발이 되어 줄 때 힘이 되면 그때 불·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면서 하라. 그러면 힘들은 어느새 사라지고 환희만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방생인 것이다.

주인공이 그러할 때 우리 아들, 딸은 주인공인 나를 닮아 **수동에서 능동으로,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어 갈 것이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인 것이다.**

일류대학과 명문대는 성직순으로 가는 것이지, 부처님이나 하늘을 밟았으로 부른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내가 변해서 나로 인하여 우리의 자식이 변하면 비록 일류대학을 못가고 지방대학을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사회가 꼭 필요한 위대한 인재로서 각자의 몫을 다하여 큰 인물로 대성할 것이다. 아주 오래전에 세계적인 수행자가 비행기에 오르면서 기자의 질문에 한마디 하던 게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 “한국 불교는 기본신앙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 기본신앙을 과감히 벗어 던질 때야만 한국 불교의 미래가 있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불자들이여! 하루속히 빨리 깨어나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인 바른 정법의 인연을 맺어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각자가 주인공이 되기를 부처님 전에 발원해 봅시다.



**불·법·승 정법 실천도량**  
**연등사(선재불교대학)**  
**여명 도안 합장**  
**경남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 519-3**  
**(충해공원내)**  
**T. 055)633-6555**